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9월 29일(주일) 제1263호



내일(30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10월 5일까지 새벽 5시 20분,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내일(9월 30일)부터 10월 5일(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에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미래를 위하여 회개하며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실황을 캠퍼스에 생중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마태복음 6장 9-13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9월 30일(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 6:9), 10월 1일(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마 6:10), 10월 2일(수)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마 6:11), 10월 3일(목) '용서한 것같이 용서해 주소서' (마 6:12), 10월 3일(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 6:13), 10월 4일(토) '악에서 구하소서' (마 6:13)를 주제로 설교한다.

특별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매일 주기도문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신만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중보기도 할 예정이다. 특순도 풍성하다. 월요일 주찬양 찬양사역팀, 화요일 워십과이어, 수요일 주사랑 찬양사역팀, 목요일 주향한 찬

양사역팀, 금요일 대학청년부, 토요일 차세대가 특순을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22일) 예배에서 "창립기념주일(10월 6일)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특별새벽기도회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한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2부 새벽예배(서빙고 비전홀, 양재 기쁨홀)는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함께! 미디어선교’

10월 6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다음 주일(6일) CGNTV가 '함께! 미디어선교'를 주제로 정기후원행사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CGNTV 정기후원행사에서는 CGNTV의 미디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예정이다.

CGNTV는 이날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CGNTV 안내, 드림통(저금통) 수거 및 배포 행사를 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씨지엔 흑백 사진관' 부스가 운영된다.

문의 : 02-796-2243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17:10~16(10월 2일 본문)

본문 주제: 보혈(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심을 받았다)

영상 제목: <모태신앙의 깨달음> 정소영 변호사

내용: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com/CKpAH-arvTM>

적용질문: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피흘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기도회

10월 10일 도쿄 요도바시교회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목회자들이 아주 뜻 깊은 기도회를 한다. 10월 10일(목) 도쿄 요도바시교회에서 '하나의 기도'를 주제로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기도회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역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일본 교계 리더십 등이 참석한다.

10월 6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사회선교 사역박람회 및 캠페인도 실시

다음 주일(10월 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촌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과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사

회선교 사역박람회가 개최된다. 오늘 생명과 환경팀은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천만광장에서 실시한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카페 5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온누리교회는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은 쓰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추수감사절 헌물

쌀 28,291kg 모집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헌물에 쌀 28,291kg을 봉헌했다. 성도들이 봉헌한 쌀은 성도, 복지기관, 교회, 사역단체 등에 전달된다.



책 읽어주는 목사

“아이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노경선 저 | 예담프렌드 | 12,000원

대학원 시절 ‘애착이론과 상담’이라는 수업과 상담실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강의를 해 주셨던 교수님은 우리나라 소아정신과 명의로 알려진 강북삼성병원 노경선 박사님이다. 노경선 교수님의 강의 주제는 항상 동일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와 아이가 친밀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이와 어려서부터 좋은 애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수업 때 예를 들며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난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혹은 상담학적 이론을 배우

지 못한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를 잘 키운 분들의 특징은 자녀들과 잘 놀 줄 안다는 것이다. 당시 나는 애착이론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이론은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었다. 친구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 등 모든 관계의 배경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패턴이 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무렵 노경선 박사님의 저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출판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기독교 부모교육 서적이나 자녀양육 서적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빈곤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에 식상함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아이들의 인성발달 과정을 심리학과 소아정신의학, 두뇌과학에 근거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애착이론 관점에서 저자가 평생 아이들을 치료하고, 강요한 임상사례와 이론을 쉽게 풀어 썼다. 저자는 소아정신과의 사이면서 교회 장로로 평생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한 분이다. 그의 책 속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이 잘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한 학자의 노력이 녹아 있다.

저자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이의 문제는 100%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나 역시 상담 현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상담할 때가 있다. 면담 결과는 100%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의 문제가 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책은 ‘나는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세 가지 애착이론을 소개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다. 안정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잘 헤아려준 결과이다. 불안정애착은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않아서 아이의 애착이 불안정하게 발달한 것이다. 불안정 애착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가 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관계의 어려움에 빠진다. 사람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인들의 불안정애착 패턴은 크게 무시형, 집착형, 혼란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책에서는 무시형과 집착형만 다룬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이 최고의 자녀양육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되는 방법은 결국 어린 시절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뇌를 잘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의 뇌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자 친구는 아이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이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 점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세속적인 지식 혹은 성경적인 지식만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면 아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아이를 잘 키우는 실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막무가내로 떼쓰고 고집 피울 때”, “칭얼거리거나 징징대면서 울 때”,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일 때”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난처한 경우에 직면하는 부모에게 좋은 팁을 제공한다.

이 책은 자녀의 애착유형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탐색하게 만들어 준다.

결국 양육자로서의 내 모습은 부모의 대물림이다. 나를 돌아보고 부모님을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인다. 이 책을 통해서 참된 부모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관계에 대한 좋은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순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답: “순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순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다”고 했다. 그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 기도, 찬양 같은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질문에 등장하는 ‘순예배’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순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째, 순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귀를 이루도록 한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귀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겠지만,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예사로 넘겨 버리기가 일쑤다.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다.”

그는 사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그 축복을 예사로 넘겨 버리기 일쑤라고 했다. 은총의 선물을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여기는 태도가 생겼다는 말이다.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이다. 순예배도 반복하기에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인과의 사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다.

둘째, 순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실을 자각하도록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귀는 이상 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현실이다. 이에 관해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참 그리스도인의 사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는 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몇 주간만이 라도 꿈속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 유쾌하지도 못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환멸을 느끼게 할 때 비로소 그 사귀는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

이렇게 그는 사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순예배를 통한 두 번째 은혜다.

셋째, 순예배는 현실을 감당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순예배에서 부딪히는 현실들은 ‘홀로 있음’과 ‘사귀’이라는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홀로 있음 없이 사귀를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진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귀 앞에서 마음을 가누어야 한다. 사귀 속에서 있지 않는 사람은 고독 앞에서 마음을 가누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함께 사귀는 날이 있으면 그와 동시에 저마다 홀로 지내는 날이 따라야 한다. 사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홀로 지내는 날이 없이 함께 사귀는 날은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순예배는 홀로 있음의 훈련을 바탕으로 서로의 사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훈련의 장이다. 이것이 순예배를 통한 세 번째 은혜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위대한 성자는 변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감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에 감사의 고백을 담은 시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를 위한 시라고 규정된 시는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지정한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경배했고, 기뻐했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신학적인 면에서 시편 100편은 일종의 ‘준비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준비 찬송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뻐 외치며 나아가라!

시편은 두 개의 평행되는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그 명령형 다음에 그 명령의 근거를 설명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1-2절).

1절은 원문에서 “기뻐 외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분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라”입니다. 그분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기뻐 외치라, 기쁨의 소리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외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외치며 노래하는 것을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라며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죄악 된 감정으로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을 만족시키

는 것으로 신앙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기뻐 외치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노래할 기본조차 들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명령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의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상황조차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이 명령에 대해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해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우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늘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을 지닌 회중들의 조화롭고 진심어린 아름다운 찬송은 예배의 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안겨준다. 회중 예배 때 찬송을 금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를 금하는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기쁨의 소리를 발하며, 손을 높이 들고,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기쁨을 줄 만한 일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즐거워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로 인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을 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라!

우리의 기쁨은 맹목적인 기쁨, 무지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성경은 “네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하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라”(3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기쁨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자녀를 보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4절).

4절은 ‘들어가라’는 또 다른 명령으로 시작

합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찬양함으로 그분의 뜰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명령이요, 초청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임재의 문 앞까지 나갔다면 감사는 그 임재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그 궁정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정은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 69:30-31).

‘광대하시다’의 영어 표현은 ‘magnify’입니다. ‘크게 보이게 한다’, ‘확대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크게 본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 더 큰 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확대시키는 두 도구가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을 때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나 바이러스를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너무 큰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보이지 않을 때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여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체망원경을 통해 보면 그 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쪽이겠습니까? 현미경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_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챙김

감정은 죄가 없다! 나쁜 표현이 문제다!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감정 다스리고 지켜내야

“내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 내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 자리 뺏고 / 내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오래전 유명한 가수 조성모의 노래 ‘가시나무’ 가사다. 이 노래가사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여유도, 침도 없는 슬픈 가시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꼭 한번은 곰씹어봐야 할 문제다. 감정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크리스천들도 입술로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가시나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인간의 감정은 롤러코스터 같다.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건강하고 적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정(感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이다. 감정과 비슷한 말로 정서, 기분 등이 있다. 감정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내리기는 쉽지만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의 종류만 간단하게 나열해도 미련함, 사랑, 분노, 아쉬움, 즐거움, 무관심, 자신감, 걱정, 괴로움, 질투, 공포, 흥분, 우울, 설렘, 그리움, 고통, 섭섭함, 행복, 서운함, 당혹, 황당, 외로움, 놀람, 지루, 쓸쓸함, 미안함, 고마움, 허탈함, 공허, 무안함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형태와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우리 선조들은 감정을 ‘희노애락오욕(喜怒哀樂憂欲)’이라고 표현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미움과 바람을 의미한다. 심리학 인지치료이론에서는 긍정적 감정(행복, 기쁨, 즐거움)과 부정적 감정(불안, 우울, 분노)으로 감정을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감정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인사이드 아웃 스토리 작가들이 고려한 감정(놀람, 오만, 믿음 등) 27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를 선정했는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 바로 그것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다섯 가지 감정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다.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도 이들이 있다. 어느 날 라일리가 이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감정신호를 보내는데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컨트롤 본부를 이탈하게 된다. 본부에 남은 버럭, 까칠, 소심이 고군분투하지만 주인공 라일리는 이제 가지 감정으로 인해 성격이 까칠해지고, 예민하고, 화가 나는 등 뒤죽박죽 상태가 된다. 주인공 라일리를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쁨이와 슬픔이가 다시 감정 컨트롤 본부로 돌아가는 모험이야기



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기쁨이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정말 많다”면서 다른 감정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슬픔이는 “세상은 너무나 슬프다”며 늘 슬픔에 잠겨있다. 버럭이는 늘 화가 난 상태이다. 소심이는 앞으나 서나 걱정뿐이고, 까칠이는 늘 “그래서 어찌라고?” 말할 정도로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다.

이 영화 주인공 라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컨트롤 본부로 돌아오면서 가출하려던 라일리가 부모 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다섯 가지 감정캐릭터 또한 기쁨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감정이 균형을 맞춰야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감정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영혼을 갇아먹는다. 일례로 지난 8월 재산상속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형을 흥기로 20여 차례나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모친 사망 이후 재산상속 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동생이 형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이다. 분노(부정적 감정)가 살인으로 이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정적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고 적절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꼭 기억할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냥 나

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는 불의에 대한 분노였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쁜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화가 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건강하고, 적절한지가 문제이다.

크리스천도 사람이다. 목사, 장로, 권사도 사람이다.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나태할 수 있다. 감정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건강하고 적절하게 감정표현 할 줄 모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우선 부정적 감정에서 빨리 헤어 나와야 한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보면 답이 나온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다. 그는 모세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다. 가나안 정탐 당시 정탐꾼 10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크다”(민 13:28)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민 14:8-9)라고 호소했을 정도로 믿음과 순종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부정적 감정에 휘말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수 1:5-6).

근심, 걱정, 불안, 주저, 두려움, 공포, 게으름, 원망, 의심, 불평, 위선, 과시, 탐욕, 강박, 조금 함, 오만 등 우리를 옥죄는 부정적 감정이 든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 4:23).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 16:22).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수 1:8-9).

박신영 자매(33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됐다고 고백했다.

“요즘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곱씹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만 집중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심걱정, 좌절로 인해 심란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더욱 말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도 우리 감정의 일부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쁘게 표현하는 게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지켜내야 한다.

기고

말씀으로 변화무쌍한 감정 다스리기



이정환 목사
(양재 상담실 담당,
책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저자)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감정(感情)이란 정(情)을 느낀다는 것으로, 기쁨이나 행복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슬픔이나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도 있다. ‘사랑’은 변화무쌍한 감정의 예로 들기에 매우 적절한 과정이다.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상대에게 마음을 전할 때 큰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거절당하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다가도 상대가 선택 응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어렵게 맺어진 연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다가도 상대에게 분노나 질투를 느끼며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사랑이 쇠락해 종지부를 찍을 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좌절감과 슬픔에 잠기게 된다. 이처럼 감정은 매우 총천연색으로 변화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활력과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무기력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한다.

어쩌면 인간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감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감정에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향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늘 감정을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기곤 한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낯선 무언가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들의 감정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와 순식간에 휘감아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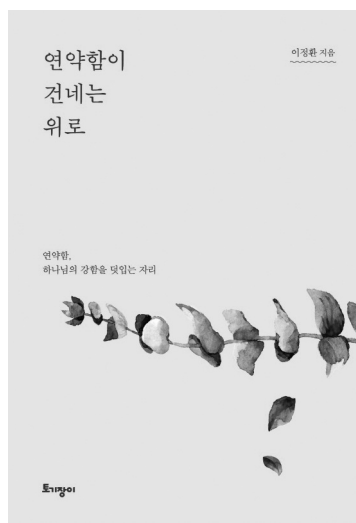
통제 불능한 감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본디 감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감정도 사단에 의해 왜곡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탈바꿈한다. 성경 인물들 또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절망감을 가졌던 ‘욥’ 우울에 사로잡혔던 ‘엘리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은 많은 재산과 가족, 건강을 전부 잃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시련 앞에서 그는 토기 조각을 손에 쥔 채 자기 몸을 긁어대며 비탄에 잠긴다. 절망을 느낀 것이다. 절망이란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감정을 뜻한다.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난과 마주했을 때 발현되곤 하는데,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급기야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까지 한다. 절망은 우리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릴 정도로 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에 종속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절망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려면 실패나 좌절을 만났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여겨서는 절단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회피하는 순간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절망을 다스리려면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 욥은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욥 42:2)라며 절



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좌절과 시련을 극복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절망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엘리아는 본래 하늘로 승천한 능력자요, 이방 선지자를 이겼던 승리자였다. 이토록 강인했던 엘리아가 우울증 앞에서 종잇장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우울증’이란 기분 장애의 일종이다. 우울한 기분, 의욕, 관심, 정신활동의 저하, 초조(번민), 식욕저하, 불면증, 지속적인 슬픔이나 불안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사실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감기를 치료하는 것처럼 아픈 상황 속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엘리아는 현명하게 대처해서 우울을 극복했다. 엘리아는 우울한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셨다. “여호와와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다.’”(왕상 19:7). 하나님이 우울한 마음을 만져주며 공감해주시자

엘리아는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도 엘리아처럼 우울증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엘리아의 우울증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에 무너진 ‘가인’ 열등감을 소유했던 ‘기드온’

가인은 아벨과 형제로,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분노란 위협당하거나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자.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해를 입을 때 나타나는 개인 지각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심리적·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보통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될 때 발현되곤 하는데 대부분의 폭력사건들도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분노의 감정은 나쁜만 아니라 타인까지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감정이다. 가인도 그랬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탓에 소중한 동생을 해하는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창 4:15).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이다. 우리도 살다보면 가인처럼 분노가 움틀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분노를 참는 것보다는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목적과 방법으로 표

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내 안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엡 4:23-24).

밀과 보리를 타작하며 생계를 꾸리던 기드온은 겁이 많은 자였다. 그는 약탈자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밀을 타작할 때마다 포도즙 짜는 틀 속에 숨어서 작업할 만큼 겁이 많았다. 늘 스스로를 작고 나약하며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열등감이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다. 열등감은 수치심과도 같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곧 열등감이 된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된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기드온도 그랬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삿 6:12). 이 말씀을 통해 기드온은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받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약탈자들을 스스로 물리쳤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한 것이다.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 저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반드시 경험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나운 맹수와 같아서 순식간에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숨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감정들을 조련사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부정적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디 하나님은 이 모든 감정들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만끽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의 연장선상으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겨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정의 정체를 바로 인지할 때 비로소 인생의 풍성함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하다.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도록 해보자. 그래야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6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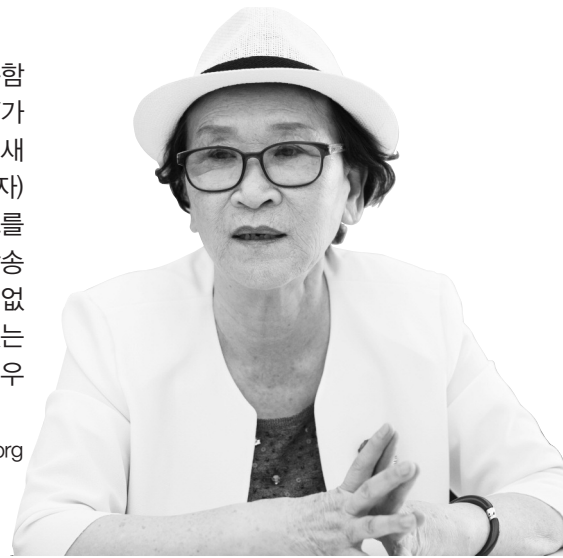
시청자와 함께 미디어 선교!

노국자 권사와 가수 김영우 형제의 후원 그리고 헌신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중요한 미디어 선교의 중심에 CGNTV가 있다. CGNTV가 미디어 선교의 새 지평을 열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시청자(후원자)다. 이 말은 누구나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상제작 혹은 방송 관련 달란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노국자 권사와 가수 김영우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노국자 권사는 자칭 CGNTV 홍보대사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CGNTV를 열심히 홍보하고, 후원에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혼자 후원자 100여 명을 모집했다. 올해 4월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말이다. 노국자 권사는 그 놀라운 일을 CGNTV 후원약정서 한 장 들고 해냈다. 그 비결은 타고난 낙살과 진심이다. 노국자 권사는 순, 공동체, 봉사단체 할 것 없이 CGNTV 후원약정서를 들고 찾아다니며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독려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눈 딱 감고 CGNTV를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후원자가 생긴다고 했다.

“온누리교회가 77개국에 선교사 917명 정도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 일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사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가 CGNTV를 후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CGNTV가 사정이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어요. CGNTV 후원자 모집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정상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CGNTV가 그 힘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저부터 CGNTV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부터 CGNTV를 후원하고 있었지만 남편, 사위, 손주들 이름으로 신규 후원을 신청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노국자 권사는 한 대학교에서 열린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회에서 CGNTV 신규후원자 두 명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자칭 CGNTV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값이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서 CGNTV 후원약정서를 건넸다. 노 권사가 후원하고 있던 봉사단체에도 CGNTV 후원을 권유했다.

“CGNTV 후원약정서를 나눠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선뜻 해주시는 분도 있고, 모른척하는 분도 계세요. 모른척한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돼요. 웃으면서 끝까지 후원을 권유하면 결국 동참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노국자 권사의 달란트는 특유의 친화력이다. 낙살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 그 달란트가 더욱 빛을 발한다. 노 권사는 15년째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품을 줍기도 했다. 그 열정이 CGNTV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에도 생겼다. 노 권사가 지금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노 권사는 더 많은 성도들이 애정과 담담함을 가지고 CGNTV를 후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CGNTV를 홍보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후원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CGNTV를 더 많이 후원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CGNTV 후원약정서 한 장이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CGNTV 후원약정서

한 장씩 꼭 써주십시오.”

가수 김영우 형제와 CGNTV의 만남

가수 김영우 형제는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다. 김영우 형제는 3인조 보컬 그룹 스위트로우(SWEET SORROW)의 보컬이다. 스위트로우로는 2005년 데뷔한 실력과 그룹이다. 김영우 형제는 오랜 방송과 음반활동 경력을 살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의 메인 MC를 맡고 있다.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된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삶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태우, 이진아, 커피소년, 제이레빗 등 수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서 음악과 신앙을 고백했다.

김영우 형제와 CGNTV의 인연은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 ‘독수리 5형제’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김영우 형제는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친한 형이 CGNTV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형이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그 형을 도와줄 생각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CGNTV ‘독수리 5형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수리 5형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CGNTV를 시청하면서 공급받는 말씀이 김영우 형제에게는 힐링이자 회복이었다. CGNTV를 후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독수리 5형제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로 CGNTV를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출연료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작은 손길이지만 선교사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CGNTV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CGNTV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전입니다. 저에게도 이런데 선교사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걸까요? CGNTV가 전 세계에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아로드리나무로!

김영우 형제는 CGNTV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트리는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아로드리나무로 만들기 위해 김영우 형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하는 것이다.

“CGNTV를 후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날 때 ‘아, 내가 여기에 몰 한 번 왔어, 내가 여기에 씨를 뿌렸지’, ‘내가 쓰다듬고 잘되라고 예뻐해 줬어’ 이런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상상됩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후원을 기다립니다.”

김영우 형제는 CGNTV와 함께하는 미디어 선교사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CGNTV를 후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가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CGNTV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후원 문의: 02-796-2243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노인을 위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

학대로 신음하는 노년 ... 교회가 예방과 회복을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마주해야 할 아주 끔찍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학대 천태만상이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부요하고, 안락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준 노인들이 자녀와 배우자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공경과, 효, 부모부양 의무가 사라지고, 경제난, 취업난, 개인의 독특한 역사가 노인학대의 원인이겠지만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다. 교회가 적극 나서서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자의 전인적인 회복을 도와야 한다. 노인을 위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가던 1980년대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25.9세였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생기 넘치는 국가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늙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다고 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부작용이 바로 노인학대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천인공노할 범죄로 여겨진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인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105건이던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2018년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증가했다.

충격적인 노인학대 장소와 가해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자료(김남원, 2017)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장소가 가정이 197건(89%)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18건(7%), 공공장소 12건(5%), 병원 9건(4%), 이용시설 7건(3%) 순이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43%)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9%), 방임(12.3%), 경제적 학대(10.8%), 성적학대(1.7%)순이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3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28%), 복지시설종사자(14%), 딸(7.7%) 등의 순이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국 자식 키우느라 한평생 번 돈 다 바쳤더니 남은 것 하나 없고, 건강한 부모와 배우자 역할 못해준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원인을 ‘부양부담’ (36.4%), ‘가해자의 스트레스’ (29.4%), ‘모른다’ (16.4%), ‘가해자가 자기 부모를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10.4%)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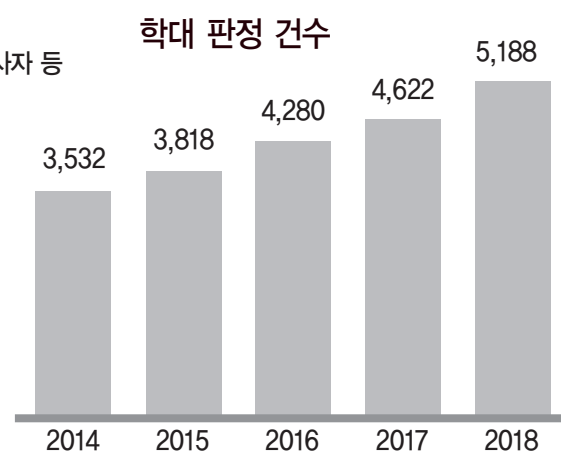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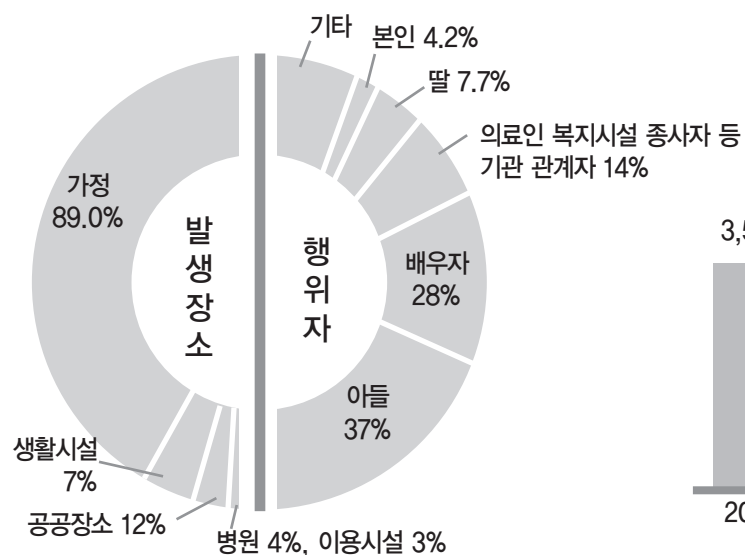
도 노인학대 발생원인에 대해 이와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부양부담, 정서적 단절, 노인 혐오, 노인들의 의존성 등을 노인학대 원인으로 꼽는다. 1980년대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요 수입은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가 70%를 넘었다. 지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5%까지 낮아졌지만 아직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미국 0.7%, 일본 1~2%, 독일 0.4%) 너무 높다. 그래서 노인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통한다는 말이 있다. “늙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 사실인 셈이다. 실제 노인학대 피해자 중에서 고액소득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적극적 신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

학대가 더 무서운 이유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집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추는 것도 문제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가족이라서’ (61.1%),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15.6%)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인학대 발생현황

* 자료/보건복지부



서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의사표현을 꺼리거나 눈치를 자주 본다.

성적학대에 노출된 노인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앓을 때 불편함을 호소한다. 귀 중품을 너무 자주 분실했다고 하거나 돈을 꼭 써야할 상황에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는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노인들은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 행여나 노인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단호한 대처, 적극적 신고가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다.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몰라도 노인을 위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다. 교회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 은퇴준비, 노인사역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노인들이 참여하는 가정회복사역을 추천한다. 은퇴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떠나는 여행, 황혼의 부부를 위한 학교 등을 제안하고 싶다. 노인학대가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들과 배우자들이 가

슴 속에 쌓아두고 있는 묵힌 상처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년세대에게는 가족의 가치, 성경적 부모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 가정의 뿌리가 건강하다면 노인학대라는 끔찍한 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두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미래가 밝을 수가 없다. 최소 은퇴 수년 전부터 미래의 수입원과 은퇴 이후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지혜로운 어르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도전을 줘야 한다.

교회가 직접 노인학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팀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인학대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전문 강사나 사회복지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1990년대부터 노인들을 섬기는데 힘써왔다. 지금도 노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경찰 112

온누리복지재단이 걸어온 20년

1. 태동기와 성장기(1999년~2009년) 2. 성장기 넘어 성숙기(2010년~2019년)

“온 세상이 행복한 그날까지...”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그리고 성장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지난 20년 세월을 되돌아봤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가 2회에 걸쳐 소개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복지재단

ONNURI WELFARE FOUNDATION

“온 세상이 행복한 그날까지...”

온누리복지재단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지난 20년 동안 나고 자라서 소외되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의 마음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1999년 8월 23일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득했다. 법인설립 이후 온누리복지재단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에 이르기까지 섬김의 대상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감동과 따뜻한 돌봄(섬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1999년 8월 23일 온누리복지재단 설립

온누리복지재단의 모태는 예수향기회다. 예수향기회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사역공동체다. 예수향기회의 주요 사역은 의지할 곳 없어 길거리에 나온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이었다. 당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효창공원을 주요 사역지로 삼았다. 1994년 8월 28일부터 효창공원에서 노인 2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7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40여 만 명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온누리복지재단의 모태가 된 예수향기회. 효창공원 무료급식사역 나가기 전.

향기를 전했다. 예수향기회의 사역은 복지사역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하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열매가 바로 1999년 8월 23일 설립된 온누리복지재단이다. 섬김 대상도 확대됐다. 노인을 비롯해서 청소년, 장애인, 아동을 위한 섬김도 시작했다. 1999년 12월부터 온누리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던 시설들을 인수하며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1991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하나로’, 1993년 1월 신림7동에서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을 도운 ‘열린이웃’, 1994년 시작된 노인무료급식 ‘예수향기회’, 1995년부터 운영한 장애인보호작업장 ‘변동코이노니아’, 1996년 10

월 남영동과 서빙고동에서 운영된 ‘청소년 공부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던 공활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섬김까지 온누리복지재단의 눈부신 성장

온누리복지재단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수탁운영하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 7일 서울시로부터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 그룹홈 ‘기쁨의 집’과 ‘소망의 집’을 수탁받아 운영했다.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장애인

들의 수익창출과 자활을 돕는 ‘디아코니아’와 ‘예손’ 사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을 위한 사역들은 계속 성장하고 확대됐다. 2002년 4월 1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개관하면서 무의탁 재가 어르신들의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2005년 8월 16일에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수탁개원했다.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다. 생활, 간호, 재활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직영하는 노인요양시설도 설립했다. 2006년 5월 1일 경기도 용인에 온누리요양센터를 개원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3월 6일에는 온누리요양센터 나눔을 준공하면서 사역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사업도 성장하고 확대됐다. 2002년 11월 20일 ‘군포청소년쉼터하나로’를 개원하고 결손가정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뿐만 아니라 공부방과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며 탈학교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8년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역지가 만들어졌다. 온누리복지재단이 2008년 4월 28일부터 남한산성에서 ‘온누리농업실습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위기청소년, 근로 장애인, 여가 노인,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농사짓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정서적·육체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계속).

사역칼럼

조항진 장로
(온누리복지재단 전 상임이사)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공활과 복지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연함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온누리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공활사역을 해왔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었고, 대부분 위탁을 받아 하던 사업이었다. 때문에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는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보았다.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는 귀한 모습들이었다. 이준에 권사님이다. 이준에 권사님은 늘 1부 새벽예배를 드리셨는데 기도 중 마음에

이웃을 향한 공활한 마음이 찾아와 살고 계셨던 신동아 아파트를 교회에 기증하셨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군포청소년쉼터하나로의 재건축 기금이 되었다.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목격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는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사람의 보편적인 습성 때문인지 그곳의 어르신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다. 그 중 한 어르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앓고 있던 병이 나아 퇴원을 하셨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치료와 간

호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어르신이 퇴원하시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된 것이다. 그 이후 그 어르신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복지사업이다. 그들의 생활을 돕고, 그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또 하나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지사업에 힘써야 한다.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도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나눔과 베품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최근 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험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분의 이야기는 기인즉, 크리스천은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다. 과연 크리스천들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걸까? 아니면 충분한 보험가입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과 상해에 따른 입원비와 수술비, 더 나아가 죽음에 따른 사망보험금까지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금융상품으로써 보험의 역사는 어떠한 상품보다 길다.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와 같은 전통적인 상부상조 제도가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길드제도를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였다.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현재의 보험 형태는 복잡하고 어렵기까지 한 것이 현실이다. 간단한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하나 가입하려 해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보험을 어떤 보장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실적 채우는 데만 급급한 보험설계사들은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때마다 암과 치매 등 죽음의 이야기들로 겁을 주며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보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보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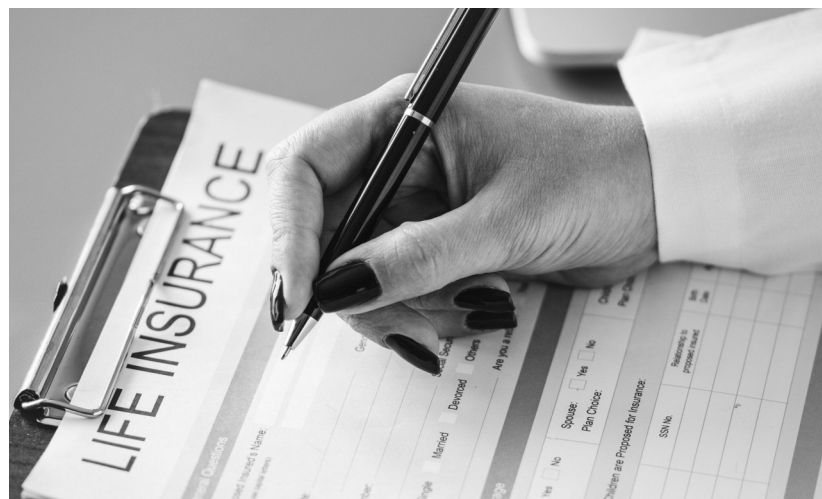
성경의 31,000여 구절 속에 ‘보험’이라는 단어는 단 한 구절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험이라는 사회제도와 상품이 구약과 신약시대에는 없었을 것이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보험의 기능 중 하나가 내가 낸 보험료로 사고가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를 생각해보면 보험과 구제의 기능이 열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인 고린도후서 8장 1~15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했다.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바울은 그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했고, 이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역시 가난했지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헌금으로 돕는 것과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원한 것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

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로 들렸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중세에 지어진 교회 건물은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는 피뢰침을 만들어 둔다. 이는 낙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회 전체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료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역시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받는 것이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8:1-15).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우리 선조들이 모내기 등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고 교환하는 두레와 품앗이처럼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내가 도운 작은 일손이 누군가에게는 큰 일손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누군가에게는 큰 재정적 도움으로, 누군가에게는 한줄기 희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추후 마게도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아마 그들 역시 받은 사랑에 더 넘치도록 갚았을 것이 분명하다.

크리스천도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두에 거론한 그 성도님이 얘기한 “크리스천은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듯하다. 이 말은 굉장히 믿음의 말인 듯 들리나 필자가 느끼기에는 준비성이 없는 무책임한 말

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따로 지불하면서까지 왜 피뢰침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건 아마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다. 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만약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권이 있는 보험이라면 당신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겠는가? 외제차가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무런 보험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강심장 소유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역시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모여서 보험금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자가 보험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는 걸 보았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과 희생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의미로 ‘보험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생긴 듯하다.

보험가입에 대한 현실적 조언

재정 전문가로서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가입해야 할지 조그만 팁을 드리고 싶다. 첫째, 보험은 본인 소득의 5~10% 이내에서 가입하기를 권한다(자녀가 있으면 12%). 보험은 저축수단이 아니라 보장수단이다. 최소한의 보험료면 충분하다. 추구에서 골키퍼는 한 명이면 충분하듯 말이다.

둘째, 종신보험(가장)보다는 가입적 정기보험이나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통해 유족들의 최소한 생활비를 보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정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의 정해진 나이 때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나 납입 기간 안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혹은 아예 주지 않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셋째, 100세 시대 실비보험은 필수이다. 보험료 1만원 아끼려다 치료비 100만원이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 이런 부분은 실비보험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

넷째, 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새로운 형태 보험이 나올 때마다 가입하면 보험파산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과거 암보험부터 최근 치매보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보험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나올 때마다 혹은 권유 받을 때마다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 내기 버거운 보험파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주변의 보험전문가나 재정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분별하라. 은행에 가면 은행직원들이 우리에게 연회비를 내줄테니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라고 권한다.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보험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문자로 안부를 전하며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실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고의 보험인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라. 최고의 보험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나눔과 베품이다. 누군가에게 내민 나눔의 손길이 내가 부족할 때 그들에 의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2019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2019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가 지난 21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여섯 차례 진행된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한 장로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에서는 장로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 장로선서, 장로합창단 특선,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수료자 소감, MOU 체결식, 특강, 2부 이정근 장로 부부와 신델라소프라노 특선, Kahoot 게임, 중보기도 등이 이어졌다.

MOU 체결식에서는 장로아카데미, 두란노아버지학교, CGNTV가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세 기관이 협력해서 타 교회 장로들의 영성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역



2019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에서 장로들이 장로선서를 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가 나타나고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영근 장로(노원공동체)는 “앞으로 더욱 합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온누리교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정병균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는 “앞으로도

이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호 장로(장로아카데미 담당)는 “하나님께서 이번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장로님들에게 새 힘과 새 희망, 기쁨을 주신 것 같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평택 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

10월 6일 첫 예배, 10월 27일 감사예배

평택 온누리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한다. 새 예배당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739-2번지 아원프라자 2층이다. 10월 6일(주일) 새 예배당에서 첫 주일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다. 오전 9시와 11시 30분은 성인예배, 오후 2시는 대학청년

부예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도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린다.

평택 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는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문의: 031-651-9680

온사랑합창단 정기연주회 ‘드림콘서트’

10월 5일 오후 5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홀

온사랑합창단이 10월 5일(토) 오후 5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홀(용산구청 내)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다. 개그우먼 이성미, Acts29 연예인합창단이 특별출연 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1만 원.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온사랑합창

단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자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CMS 후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소속 합창단이다. 2011년 6월 창단했다. 현재 단원 25명과 전문음악인 10여 명이 함께 꿈을 꾸고 있다.

문의: 02-3215-3268

‘엄빠랑 바이블코딩’ 참가자 모집

10월 12일~11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차세대를 세우기 위한 ‘엄빠랑 바이블코딩’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 이야기를 활용해서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2호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부모다. 10월 5일까지 이메일(jinhyun0813@onnuri.org)로 신청하면 된다. 학생과 부모의 이름, 학년, 전화번호, 캠퍼스, 공동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회비 3만 원. 문의: 02-3215-3521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CGNTV, 오늘(29일) 첫 방송

CGNTV가 제작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 실천 편(이하 아빠가 - 실천 편)>이 오늘(29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아빠가 - 실천 편>에서는 목회자와 각 가정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가정예배를 드린다.

오늘 방송에는 가수 공휘·개그우먼 정지민 부부 등 어린 자녀가 있는 세 가정이 참여하고, 온누리교회 문영재 목사가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추가하면 안내에 따라 유튜브 라이브 가정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도 있다.

하트스쿨 사역자 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5일~11월 9일 매주 토 오후 2시

하트스쿨 사역자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트스쿨 사역자 학교는 어린이 하트스쿨, 부모 하트스쿨을 섬기는 하트스쿨 예비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

행된다. ‘공감적 의사소통’, ‘아동 발달의 이해 및 원가정의 이해’, ‘대인관계와 방어기제’, ‘기쁨의 회복 및 관계 기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0월 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5만 원. 문의: 02-570-7445

남수단 난민 학생 희망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난민 학생 희망 캠페인’ 후원자를 찾고 있다. 남수단 난민 학생 희망 캠페인은 매월 1만원씩 아프리카 우간다 부드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내년 상급 학교로 진학을 앞둔 학생이 185명이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전화(02-2271-2246)로 신청하면 된다.



구마모토 기·도·제·목

- 9월 29일(주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 9월 30일(월) 현지 리더십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많은 교회가 참여하도록
- 10월 1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구마모토에 영적 부흥과 새 바람이 불도록
- 10월 2일(수) 러브소나타 모든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 10월 3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자에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10월 4일(금) 봉사자들과 참가자들의 섬김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 10월 5일(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7212	이예진	여호수아	1137245	한미정	Point5	1137275	유아리	대전 남누리	1137316	신태자	강남A
1137213	김자영	여호수아	1137248	이호영	강서	1137276	이혜윤	부천 화평	1137317	박진영	교양은평
1137214	우수진	여호수아	1137249	임 완	도곡	1137277	김슬기	하북	1137319	임새미	부천 화평
1137215	고상훈	여호수아	1137250	박은경	영등포구로	1137278	김혜진	송파B	1137320	김학동	양재
1137216	김건우	여호수아	1137251	서민구	SNS	1137282	이나라	인천Web	1137321	임영운	대전 동누리
1137217	권지연	여호수아	1137252	목홍철	SNS	1137283	김대연	인천Web	1137332	이순희	충주로
1137218	이도경	여호수아	1137253	김시은	SNS	1137284	정청경	인천Web	1137333	서용권	수원 북누리
1137219	박서현	여호수아	1137254	남궁은	SNS	1137285	김지민	인천Web	1137336	추대관	Point5
1137220	황나래	여호수아	1137255	이민화	SNS	1137286	안 준	인천Web	1137337	유정선	관악금천
1137221	이원재	여호수아	1137256	김부경	SNS	1137287	김민정	인천Web	1137338	김소중	푸른누리
1137222	최창혁	여호수아	1137257	이길찬	SNS	1137288	이찬원	인천Web	1137339	이종민	J4U
1137223	명주람	여호수아	1137258	우지호	SNS	1137289	양시창	가정사역	1137340	김현철	여의도
1137224	김도연	여호수아	1137259	김민경	SNS	1137290	안수경	수원 북누리	1137344	이병철	인천 미추홀
1137225	강종화	여호수아	1137260	손유경	SNS	1137291	손경순	영등포구로	1137345	원경주	인천 동누리
1137226	김희섭	여호수아	1137261	박현지	SNS	1137292	김혜경	영등포구로	1137346	김미숙	송파A
1137227	이소희	여호수아	1137262	최윤미	무궁동체	1137295	계윤범	양지 서누리	1137347	고선영	대전 남누리
1137228	신지혜	푸른누리	1137263	권영찬	갈렙	1137296	김현규	강동 믿음	1137348	김성현	이촌
1137229	이성현	하북	1137266	박연진	성북	1137297	이지민	동대문중앙	1137349	이미진	SNS
1137230	조아현	하북	1137267	민덕기	강남A	1137298	김상희	여호수아	1137350	김혜미	SNS
1137231	임지연	하북	1137268	이정욱	영등포구로	1137299	김지영	부천 소망	1137351	황성원	SNS
1137232	이소희	성동광진	1137269	우동호	분당B	1137300	오현정	평택	1137352	김태수	SNS
1137233	김재범	중주로	1137270	정규석	양재	1137302	이하나	수원 HIS	1137353	박혜림	SNS
1137234	노진완	양재	1137271	강병국	서산온누리	1137303	이신혜	수원 HIS	1137354	박상우	SNS
1137235	황성일	송파B	1137272	권명우	대전중국어예배	1137308	최민식	관악금천	1137355	한수현	SNS
1137236	최성섭	인천 동누리	1137274	박윤근	서초D	1137309	김문정	교양은평	1137356	정은규	SNS

9월 세레자

- 서빙고 김형덕 590220
- 김민선 870729
- 김주연 840922
- 손정성 750419
- 입교 김현서 010222
- 조서영 871102
- 조가영 871102
- 유아 신다빛 180709
- 신경철 조혜경
- 고시영 180614
- 고민성 이미희
- 김예윤 170915
- 김영준 정재원
- 김강울 171202
- 김대웅 신사랑
- 김주찬 180412
- 김무환 이승연

- 성민규 180813
- 성기원 이승현
- 이라엘 170917
- 이승현 차현아
- 손하영 171127
- 손혁준 유혜경
- 백성아 171028
- 백만기 김지은
- 양재 고희경 660910
- 김강범 670620
- 김수연 751028
- 배성훈 830623
- 이선희 810725
- 정민정 670610
- 유아 고하린 180515
- 고봉익 성정은
- 박시는 180407

- 박신민 김승혜
- 박한음 180819
- 박상훈 오선민
- 서 원 171121
- 서의성 백인혜
- 신담비 180525
- 신석진 천세나
- 신예민 171127
- 신현민 정수진
- 유영재 170802
- 유인환 박진아
- 윤승우 180426
- 윤석권 조유리
- 정하은 180515
- 정리훈 한가진
- 조하은 171117
- 조형욱 박소연
- 한정우 171107
- 한 신기효영
- 대학청년부 SNS 강윤석 990512
- 김지안 910916
- 김효선 850601
- 안수영 911017
- 최보미 950917
- W 김봉경 770220
- J4U 이종민 850907
- 황태환 920330
- 유아 이다희 181003
- 이창훈 김소명
- 갈렙 감지은 961008

■ 평택 몽골 아웃리치 간증



/ 이지은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이것이 천국잔치구나!

평택 온누리교회는 올 여름 몽골 계시목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평택 온누리교회 손신국 담당목사님은 아웃리치 첫날 “아웃리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첫째 날 저녁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님이었는데 순식구들이 아웃리치 기간 동안 그 형제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돌아가며 가게를 지켜준다고 했다. 아웃리치 현장에는 그 형제님 혼자 왔지만 모든 순식구들이 함께 한 아웃리치가 분명하다.

둘째 날 계시목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준비하며 성도님들과 마을 주민들을 기다렸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평택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고국으로 돌아간 몽골 지체들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미용, 의료, 전도 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나라와 언어를 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은 몽골 성도님들과 함께 푸른 초원

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세례식도 진행했다.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베푸는 침례로 이루어졌다. 몽골은 평균 기온이 낮아서 여름에 딱 한 번만 침례식을 할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총 열 두 분이였다. 계시목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 날을 준비해 온 분들이였다.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서 한 분 한 분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 분들의 얼굴에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다른 성도님들의 환호 소리에 ‘이것이 천국잔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고 왔다. 날마다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섬김과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명의 팀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준비로 많은 것들을 내어주신 팀장님, 곳곳에서 섬겨주신 성도님들, 함께 떠나지는 못했지만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 SNS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방지원 자매(SNS공동체)

어느 작은 마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우리팀은 이 말씀을 주체 말씀으로 삼고, 세네갈을 품고 섬기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세네갈에서의 주된 사역은 어린이 영아캠프와 현지 성도들과의 연합집회였다. 두 가지 사역을 통해 받은 기도응답과 감사 제목은 영혼과 영혼의 조우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 시종 열방으로 나아갈 때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구하는 기도제목은 ‘영혼들을 품게 해주세요’라는 고백 아닐까 싶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높이를 맞추고 안아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 그들의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안기는 듯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향한 축복기도가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다. 우리팀 아웃리치 목적이 우간다에서 세네갈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쌓았는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같은 시기 우리팀은 우간다 사역길이 막

혀 갑작스럽게 행선지가 세네갈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네갈을 향한 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슬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인 세네갈에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고립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우리팀이 섬겼던 현지 교회의 목사님은 실제로 사회적인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고 계셨다. 마침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한국에서 봉사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교회에 방문해서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계셨다고 한다. 우리의 방문은 곧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목사님께는 기도응답이었다.

세네갈에서 맞은 주일에 모든 팀원들과 현지인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다.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커다란 창문들을 통해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어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눈 여겨 보지 않는 세네갈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 양재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간증



/ 김재필 성도(양재공동체)

후회와 회개

나는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청년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되어 원하던 직장을 갖게 되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던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자녀를 양육하며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세상 속 물질의 풍요나 각종 모임의 즐거움이 허탈감과 우울감으로 변했고, 어둠이 집안 분위기를 삼키고 말았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는 이웃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마음과 육신을 의탁하게 되었다. 나 역시 아내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신앙을 찾았다.

그러던 중에 OBC-요한복음 과정을 들으면서 나의 몸과 마음, 생각과 말, 행동과 감정 모든 것이 기독교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 나약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지 몰라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모든 형제자매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품안에 나 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된 생각이 간헐적으로 찾아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던 중에 순장님이 보내신 ‘양구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순종했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팀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보기, 청소하기, 설거지, 부침개 만들기 등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성경 역시 아는 만큼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겼지만 아는 사람도 없이, 두 발이 있어도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앞서 봉사와 섬김을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늘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어디서든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설렘과 사랑을 알게 하셨다. 나를 일으켜주셨다. 늘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을 너무 길게 돌아왔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왜 그리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후회와 회개를 하게 만든 아웃리치였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회복사역 행복반 수료 간증



/ 양현순 집사(수원 온누리교회)

내게 나타난 변화

나는 몇 십 년 동안이나 교회생활에 열심이었고, 가정에서도, 일에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잘 살아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신앙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복사역 행복반 과정에 참가하면서 용서하지 못함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내 안에 묶여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은 마치 깊은 바다 속에 가리앉은 바위 같았다. 하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다가오시며 내게 의지와 결단을 물으셨다. 이에 나는 “주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나다”라고 대답했다. 용서는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혼자 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행복반 교육 기간 동안 얻은 또 다른 수확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최대로 다가왔음과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영적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음이었다. 그 결과로 주님과 친밀감이 생겼으며, 그 사랑과 은혜의 반응으로 주변을 섬기게 되었다.

나는 “오래된 집을 떠나 아름답고 좋은 환경으로, 산과 강이 있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기도했었다. 하지만 최근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동네를 걸으며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집 주위 숲과 오솔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경험을 했다. 심지어 오래된 나무들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바빠서 QT를 못해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홀로 하는 말씀묵상이었다. 이번 행복반 과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었다. 말씀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마치 긴 가뭄 속의 단비 같았고, 고급 어선과 고급 어망을 선물 받은 것에 비유되었다. 어느 때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영적 열매를 수확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며, 우리 가정에 영적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장로칼럼

관계기술훈련



김인선 장로
(회복사역,
송파A공동체)

인간은 태어나면 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한 가족 관계를 시작으로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등으로 관계영역이 점차 넓어진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또 하나의 관계,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적이거나 마지못해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관계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행복감과 불행감이 좌우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느끼지만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지며, 삶의 의욕을 잃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라고 조언한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한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참고 견디는 것, 성경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하기를 더디 하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내 안에서 감정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참기만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끓아터질 가능성을 키우며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회복사역에서 하고 있는 관계기술훈련이 성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회복사역에서는 참는 것도 유익하지만 진솔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관계와 감정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내면은 미움과 갈등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 끓아 터져서 감정조절장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식이라고 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식, 위선과 투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의 내면을 투명하게 보여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시꺼멓고 내 감정이 너무 부끄러워 선뜻 드러내지 못한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된다.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개선과 회복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복사역에서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보호자’라고 한다. 서로의 연합함을 보호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해주는 기쁨의 공동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임재와 교류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술훈련을 받는 목적은 기쁨의 정체성을 가진 온유한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결실의 계절에 겸손하게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진솔한 앎을 통하여 삶을 공유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앞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서동화 권사
(온누리전도학교,
경기A공동체)

나는 온누리전도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매 학기 온누리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놓아주시니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도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부담감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 지난 온누리전도학교 12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기를 시작하는데 수강생들이 모이지 않아 걱정했었다. 적은 수강인원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온누리전도학교 담당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릴레이 금식기도와 밤 10시 정시기도를 시작했다.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스쿨 신청과 문의 전화가 이어졌고, 정원 40명을 넘어 43명이 등록한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정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학기 수강생이 적게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모습을 화게하게 하셨다. 온누리전도학교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강생이 많아 강의실이 꽉 찼다. 다과를 세팅할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 준비해야 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매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다. 온누리전도학교 스태프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모든 수강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로 다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학기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온누리전도학교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이제는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전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의 기쁨이 기대된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 앞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흠뻑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눈물의 땅, 콩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영선 목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지난 8월 18일 주일 2시 예배시간에 간사님이 쪽지 한 장을 전해 주셨다. 그 쪽지에는 성도님 한 분이 방금 소천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랫동안 새벽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며 투병해 오신 성도님이셨다. 그 성도님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소천하셨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계가 느껴졌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콩고 단기선교팀이 그 다음날(19일) 출발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경에 있는 대사관에서 18일까지 비자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미 4주 전에 비자를 신청했

는데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직원 모두가 휴가를 가버린 것이다. 비행기 표를 구입한 상황이라 모두 당황했다. 17일 토요일에는 아웃리치를 가는 9명이 모여 기도했다. 콩고 현지의 스태프들도,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주셨다. 특히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주일예배에서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 성도님이 위독해지신 것은 며칠 전부터였다. 나는 그 성도님께서 소천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 목사님께 부탁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성도님의 상태가 급변해서 주일에 소천하신 것이다. 오랜 기간 같이 기도해 온 사랑하는 성도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은 목사인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오신 성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온 교회가 사랑으로 보내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른 성도님이 동경 대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를 받아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화요일 저녁 출발하는 새로운 항공편을 구입했고, 화요일 오전에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예배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로하시기 위해 모든 일정을 잠시 막으셨음이 느껴졌다. 우리 모두 그 성도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며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유족으로 오신 조카분이 나중에 메일을 보내왔다.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고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담아 답을 보냈다.

화요일 오후 팀원 모두가 모여 공항으로 출발했다. 콩고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다. 선교사님의 안내로 숙소로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부터 사역을 시작했

다. 4일 동안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4개의 교회를 다니며 여름성경학교, 성인집회, 노방전도, 심방 등을 했다. 작년에 아웃리치를 왔을 때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전도집회를 했었는데 다시 방문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다. 성도도 이미 30명 이상이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기도가 충만했다. 우리는 콩고에서 사역하는 곳마다 기도했다. 어린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스태프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기도의 장소에 눈물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다.

성도님의 소원과 콩고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아웃리치를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

너무 작아서 지나가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불평하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무시해도 되는데 점점 커져서 우리 삶을 압도하게 됩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나치고 무시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될 때 실제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magnify’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체험하게 됩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신비를 체험합니다. 감사는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평소엔 보이지 않았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크기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5절).

5절의 시작은 ‘선하시기 때문이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해 반역하고, 선에 기생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자신을 반역한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도 복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

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롬 8:28).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더 닮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봄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두 자매가 갇힌 수용소는 다른 수용소보다 벼룩이 많이 들끓어서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코리 텐 봄의 언니가 이런 환경까지도 감사하자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벼룩까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코리 텐 봄 여사는 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벼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감방 주위에는 간수나 나치 군인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서 그들이 마음껏 말쑥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벼룩으로 인해 체험하게 된 은혜입니다.

감사, 믿음의 시각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토마스 아 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별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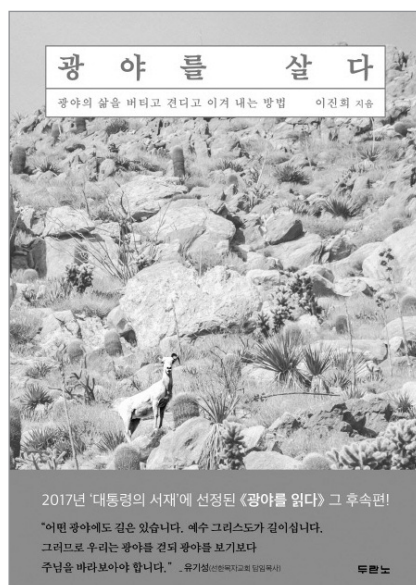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마지막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을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고 현재를 바라볼 때 고난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 임재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그분 앞에 즐거워하는 삶이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광야를 살다〉
이진희 저 | 두란노 | 16,000원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나름대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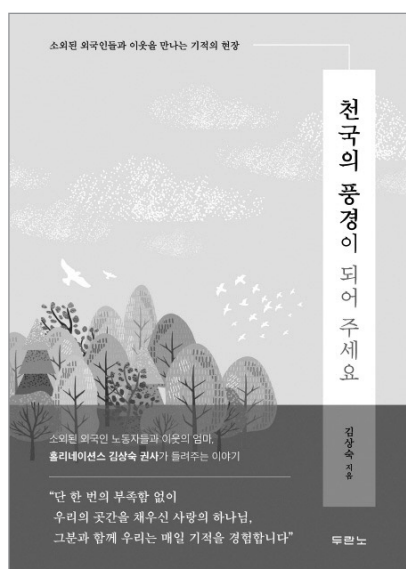
이진희 목사는 책 〈광야를 살다〉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겪었던 13곳의 광야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신 광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지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광야는 결코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 세월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들 모두 광야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기도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살다〉를 추천한다. 이 책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김상숙 저 | 두란노 | 11,000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김상숙 권사가 펴낸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이다. 저자는 홀리네이션 선교회(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선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상숙 권사와 홀리네이션은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질병문제, 숙식문제, 교육문제 등을 도왔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도운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 그 결과 이제껏 부족함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김 권사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행복은 어려운 이웃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다. 누구든지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를 읽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기쁨을 담백 누릴 수 있다.

14 온누리신문

2019년 9월 29일(주일) | 제1263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일대일 심화과정 Make-up4 수강생 모집

일시: 10월 6일, 13일 매 주일 8:10~10: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1호

신청: 문자(010-9265-1532)

서빙고 창조과학탐사(1박2일)

일정: 10월 5일~6일/강원도 태백, 삼척, 동해

문의: 010-7636-6305

서빙고 창조신앙스쿨

일정: 10월 20일~11월 17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010-7292-2349

CMN 라파엘 치과의사 모임

일시: 매월 2,3째 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안산M센터(외국인 무료진료)

문의: 박귀홍 팀장(010-9900-2875)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자세한 사항은 ommckr 참고

목회자 부부를 위한 부부학교 세미나

일시: 10월 28일~29일/문의: 02-2182-9114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10월 19일~11월 2일 매주 토 오후

2시~9시(10월 26, 27일은 1박2일)

장소: 경기도 광주시 진새골 온누리교회

대상: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031-767-2776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CGNTV

동역자와 함께! 미디어선교

기도와 후원, 헌신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이
바로 CGNTV입니다.



작은 바자회 후원금

3,000여만 원

2019년 6월 23일

CGNTV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작은 바자회의 수익금이
미디어선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 시간

5,610분

2019년 1월 - 9월

미디어선교 비전을 위해 헌신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전문성으로
CGNTV를 섬깁니다.



중보기도 모임으로 드러진 시간

15,660분

2019년 1월 - 9월

CGNTV와 직원들을 위해
90명의 드림온맘이 매주 뜨겁게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발송 우편 통 수

10,160통

2019년 1월 - 9월

시간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에서
미디어선교의 열매가 전해집니다.



*10월 6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입니다.



후원자

32,000여명

하나님의 꿈 CGNTV,
후원으로 동역하실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10월 6일 정기후원 행사 시 전 캠퍼스에서 드림통을 수거합니다.

함께! 미디어선교

CGNTV 후원캠페인



인도네시아 바둑이종족 남영순선교사